6개월 동안 뭐했나…

총무원장스님 담화문 발표에 불교계 실망감 일색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대정부 담화문이 발표된 뒤 불교계 안팎에서는 우려 섞인 평가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담화문에서 자성과 쇄신을 표방하며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한국 불교의 역할을 다하겠다던 6개월 전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6월 8일 각 계 인사 4인에게 이번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은 5대결사의 시작부터 담화문 발표까지의 모든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퇴휴 스님은 "예산은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당히 받아야했다. 처음부터 접근법이 잘못됐다. 정부 인사를 만나지 않고, 예산을 거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불교자주화와 민족문화수호를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앞으로 불교가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보존하고 계승하는 노력을 통해 예산이 종교로서 불교가 아닌 전통문화로서의 불교에 지원되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국 前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는 "5년이건 10년이건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문화를 지키겠다더니 6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결국 예산 때문에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前 특보는 또 규제완화 등 최근 정부가 보인 정책들은 수년전부터 종단이 요구해온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입장을 전환한 것은 종단이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민족문화수호와 5대결사를 한다고 할 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하는 실망감을 안겨줬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자세를 유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또 "정치권의 이 정도 제스처에 입장을 바꾼다면 종단이 스스로를 격하시킨 것이다. 자성과 쇄신을 외쳤던 불교계의 요구가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불교와정책 운영위원 법응 스님은 대정부 관계 변화는 옳지만 5대결사가 무엇을 남겼는지 내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정부 관계는 어른의 입장에서 잘못한 점은 야단쳐야 한다. 그런데 5대결사는 아무래도 허전하다. 문구로만 추진하니 내용이 없다. 핵심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추진해야 하는데 다른 기구로 넘기려는 모습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법응 스님은 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자성과 쇄신으로는 어렵다. 제대로 된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종단이 현재 상황을 잘 극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6월 7일 담화문에 대해 교단자정센터가 '불교자주화, 구두선에 그쳐버렸는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는 "담화문에서 5대결사의 시발범인 국고지원금에 대한 어떠한 투명한 관리대책이나 자립을 뒷받침할 만한 의지와 실천계획, 자성과 자정의 모습을 담은 구체적 실천강령도 제시하지 못했다. 구호만을 외치면서 문제의 핵심만을 슬그머니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지금까지의 한국불교 결사는 아래로부터의 자각·자성으로부터 시작돼 큰 울림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사는 위로부터의 결사이므로 더더욱 이 결사를 시작한 종단 지도자들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으로 시작됐어야 했다"며 "국민적 공감, 울림 없이 전담추진기구를 만든다고 결사가 성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총무원이 이번 결사를 대정부 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 총무원의 실책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했다면 숭고한 결사 정신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한국불교의 앞날을 망친 훼종행위"라고 지적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지금이라도 총무원은 5대결사의 기초가 될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재정투명성 강화방안, 공정한 인사 및 사법제도 개혁방안, 종단의 민주화 개선방안, 건전한 승가공동체 회복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실천계획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박기범 기자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담화문

지난 해 12월, 종단에서는 정부 ? 여당의 전통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종교 편향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사찰 출입 제한, 국고 지원 수령 보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정부 여당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종단 스스로도 전통 문화 보전과 대정부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주장을 관철시키는 투쟁과 대립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현실을 직시하고 종단이 먼저 의식 전환과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통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1월 26일에는 총무원장 담화문을 통하여 자성(自省)과 쇄신(刷新) 결사(結社)의 정신으로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5대 분야의 실천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6개월 여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내부의 의지 결속과 관성 타파를 위한 의미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대화와 출입 제한 방침이 불교적인 방식인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나, 종단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제하고 이해하고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도들 스스로 자존과 자립의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종도들의 의식 전환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견디고 종단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찰의 주지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6개월 여 진행해 온 대정부 관계를 정상화하고 자성과 쇄신 결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소통 중단과 출입 제한의 조치를 해소하고, 전통문화 유산과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 지원 예산 등도 정상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차단과 제한의 방편 대신 적극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운영의 원칙인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함으로써 세상이 변화한다는 가르침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로써 모든 종도들과 전국 사찰의 주지스님들은 중앙종무기관과 각 교구 본사의 지도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존의 정신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도와 지역 사회를 우선 소중히 여기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함께 하는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종교인으로서의 자세, 승가의 위의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제33대 총무원 집행부는, 그동안 종단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언급되었던 현안들을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사업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종단의 '자성과 쇄신 5대 결사'를 지지해주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결사의 뜻과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한편에,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새겨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더욱 본격적으로 결사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결사 전담 기구가 곧 출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단의 유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기능과 함께 종교 본연의 중생 구제와 사회적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결사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이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승가가 중심이 되어 작은 변화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결사의 정신을 실현하고, 국민들과 사회에 회향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緣起)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절박한 현실이라는 과(果)는, 선대(先代)의 덕화(德化)에만 의지한 채,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던 지난날의 인(因)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자 하는 자성과 쇄신의 길은 새로운 인(因)이 되어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 사회의 통합과 평화로 이어지는 행복한 과(果)를 맺게 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모든 종도들이 결사 정신으로 한 몸을 이루어 한국불교와 우리 사회를 밝히는 장엄연등이 되고 그 환희심(歡喜心) 가득한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기 2555(2011)년 6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박구원 만평

화쟁위원회, 신규 위원 발탁

박광서 교수·운달 스님 7일 위촉돼

박광서 교수

운달 스님

박광서 서강대 교수와 운달 스님이 조계종 화쟁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신규 위원 위촉식을 6월 7일 열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운달 스님은 건강을 이유로 위촉식에는 불참했다.

자승 스님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종단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화쟁위원으로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화쟁위원으로 위촉된 박광서 서강대 교수는 "사회갈등과 종교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화쟁위에서의 내 몫인 것 같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권력화된 종교가 국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그것은 정치 민주화의 심화라고 생각한다. 스님들이 너무 정치권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조계종이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도법 스님, '불신' 발언 해명

보도 내용 과장 지적… 유감 표명

"내 본의와는 다르게 보도돼 유감이다. 표현에 서툴렀을 뿐 종단의 5대 결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원장 스님과 집행부, 종도들에게 죄송하다."

도법 스님이 6월 7일 열린 화쟁위원회 10차 회의에 앞서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기 추모 '생명평화 대화마당'에서의 발언을 해명하고 나섰다. 스님은 당시 발언 중 일부 부정적 단어가 언론에 과장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도법 스님은 6월 3일 '생명 평화 대화마당'에서 "종단이 추진하는 결사를 종도들 대부분이 불신한다. 결사를 표방했으나 내용이 없고, 불신이 생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의해 일부 교계 언론에 보도돼 확대해석을 차단을 위해 나선 것이다.

도법 스님은 "5대 결사가 잘 추진돼야 하고, 나 역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 나의 본의다. 원장 스님과 집행부가 잘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박기범 기자

영선사 등용청소년공부방 여름방학 특별 용맹정진 팀 입방공고

인재의 양성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째, 인격적 도야와 수행을 통한 것과 둘 째, 선거를 통한 것, 셋 째, 학습을 통한 것입니다.
영선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지장철야기도를 봉행(2011년 5월 현재 152차)하고 있는 지장기도도량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장보살님의 사상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자 인재 양성의 길 중 세 번째를 택하여 사찰이 위치한 소재지인 인월에 무료 공부방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기 중에는 지역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방학 중에는 20명 정도의 영선사 신도님들 자녀들 위주로 4번의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여름 방학부터 문호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공지를 드리니 안내를 참고하시어 참여하실 님 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1년 7월 18일(월) ~ 8월 12일(금)** (이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결정함)
■ 입방자격 : 중등 이상(대학생 포함) 불자 및 무교 여학생 (남학생은 방사 문제로 영선사 신도들 자녀로 한정함)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35명
■ 팀 구 성 : 1팀-자율학습 / 2팀-스님이 직접 영어와 수학 중심 지도(기초반) / 3팀-학교 보충 수업 시작 전 잠깐 쉬는 기간에 와서 공부
■ 비　　용 : 없음. 약 한 달 간 무료로 영선사에서 숙식하며 학습은 공부방에서 진행됨
■ 운영시간 : 오전 9시 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주지 스님의 관리 하에 학습 진행
■ 특이사항 : 본 용맹정진은 단기간의 수련대회가 아니라 장기적 학습을 위한 것이므로 종교적인 부분은 매일 일정 시작 전 삼귀의와 반야심경이 있을 뿐입니다.
■ 신　　청 : 영선사 다음카페에서 입방원서와 청규 서약서를 다운 후 이메일로 신청 후 문자 연락함 - **0770child@hanmail.net**
■ 기　　타 : 문의 사항은 영선사 홈과 다음카페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람
■ 위　　치 : 영선사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 32번지 / 공부방 - 인월면 소재지

주지 월공스님 약력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 실상사 화엄학림 수료 / 조계종 어산작법학교 본과 졸업 / 조계종 어산작법학교 전문반 졸업 / 한디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 한디대 청소년학과 졸업 / 공군 군승법사 전역
- 사회복지사 1급 / 보육교사 1급
- 현 영선사 주지 / 현 함양시민연대 공동대표 / 현 남원경찰서 경승 / 현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대표이사 / 현 등용청소년공부방 관장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오봉산 영선사.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등용(登龍)청소년공부방
http://cafe.daum.net/youngsunsa / http://www.youngsunsa.org / http://www.isaram.kr